

##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경영성과 평가시스템에 관한 연구

조아라(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)

1980년대에 오일쇼크 등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, 전 세계적으로 신공공관리(new public management)를 기반으로 한 성과중심의 정부개혁운동이 전개됐다. 이 시기 국내에서도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제거 등을 목적으로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, 이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. 그러나 2000년 이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의 타당성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.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.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배태하고 있는 과학기술에서 산출된 성과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, 이러한 비판은 대체로 과학기술 성과의 기본정의를 비롯해 평가의 규범론적, 개념적,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였다.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정부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성과 평가시스템의 성과지표를 수정했다. 그러나 성과 평가시스템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A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시스템의 특징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, 향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성과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안코자 한다.